

‘묵서지편’ 천년의 침묵을 깨다



■ 석가탑의 천년 한 눈에 읽다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물로 알려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함께 발견됐으나 40년간 베일에 가려졌던 ‘묵서지편(墨書紙片)’의 비밀이 공개됐다.

지난 10월 27일 세상에 소개된 ‘묵서지편’의 내용은 석가탑의 역사 그 자체였다. 묵서지편을 통해 석가탑의 프로필을 재구성했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애절한 사랑의 전설을 품고 세워진 무열왕, 김대성의 원력으로 8세기 중반 조성된 이래 정토구원을 염원했던 신라인의 이상과 석가여래의 설법이 상주함을 증명하며 서석탑의 이름으로 불국사를 지켜왔다.

고려 현종 15년(1024년) 경주 인근의 지진으로 석가탑은 1차 보수했다. 정월부터 중수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준비했다. 여러 스님들이 쌀, 콩, 보리의 곡물류는 물론 철, 모, 비단 등을 공양했다. 관료인 안동



불국사 석가탑.

고려때 지진으로 두차례 중수, 임란때 안전 1966년 보수 위해 탑 해체하면서 유물 발견

대도호부사도 씀을 보냈다. 서두른 덕분에 2월부터 탑의 해체를 시작해 2월 18일에는 탑에 모셔진 사리를 수습하여 금당 뜰로 옮겨 모실 수 있었다.

사리가 옮겨진 뒤 중수에 박차를 가해 손상된 탑을 속히 보수하고 3월 14일 사리를 봉안하기에 앞서 사리를 안장하기 전 의식을 올린 뒤 안동대도호부사에게 경위 보고를 했다. 금동함, <무구정광대다라니경> 9편, 순금병, 금병을 찬 비단, <보현인다라니경>, 용뇌화 등 다양한 향교 소석탑 등 사리장엄구와 복장물을 챙겨 사리를 다시 탑 안에 모셨다. 사리가 모셔진 뒤 대목 등이 안치 결과를 실했다. 이같은 사

실에 대해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에 기록하고, 소요된 물자와 공양물 등에 대해서는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행지기’에 기록하여 함께 탑에 봉안했다.

원력으로 대중들은 다시 시주를 보냈다. 1차 중수 때처럼 곡식류와 삼베, 비단과 마 등이 시주됐다. 스님들의 속가에서도 도움을 줬다. 다시 2층 탑신을 해체해 사리를 꺼내 임시봉안소에 모시고 공양을 올렸다. 재(齋)를 거듭 올리며 1층 옥개석, 탑신을 해체하고 기단부 감석까지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겨울비에 공사는 중단되고 비는 나흘간 계속됐다. 날이 개자 다시 재를 올리고 탑을 조립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불국사서석탑중수기행지와 추기’에는 중수 진행 과정을 ‘불국사탑중수보시명공중승소명기’에는 보시자들을 기록해 함께 봉안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임진왜란 등 숱한 외세의 침입과 한국전쟁의 화마도 대중의 원력으로 조성·중수된 석가탑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966년 석가탑 보수를 위해 탑을 해체하면서 귀한 유물들이 세상에 소개됐다. 사리를 봉안한 탑신부 2층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함께 사

리함 등이 나왔다. 사리함 주위로 동거울 등이 사리함 밖 바닥에서는 비단에 쌓여 뒤엎겨 붙은 종이몽치가 발견됐다.

당시 기술로는 이 종이몽치를 떼어낼 수 없어 이른바 ‘묵서지편’이라 불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해야 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보존처리를 위한 상태조사를 하면서 발견된 종이들은 110여 편의 분량으로 분리될 수 있었다. 2005년 9월 묵서지편에서 ‘중수기(重修記)’라는 문자가 판독된 지 2년이 지난 2007년 10월 발견. 41년만에 ‘묵서지편’ 전체가 판독되어 창건 이래 두차례 중수된 석가탑의 비밀이 밝혀졌다. 조동섭기자

원력으로 대중들은 다시 시주를 보냈다. 1차 중수 때처럼 곡식류와 삼베, 비단과 마 등이 시주됐다. 스님들의 속가에서도 도움을 줬다. 다시 2층 탑신을 해체해 사리를 꺼내 임시봉안소에 모시고 공양을 올렸다. 재(齋)를 거듭 올리며 1층 옥개석, 탑신을 해체하고 기단부 감석까지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겨울비에 공사는 중단되고 비는 나흘간 계속됐다. 날이 개자 다시 재를 올리고 탑을 조립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불국사서석탑중수기행지와 추기’에는 중수 진행 과정을 ‘불국사탑중수보시명공중승소명기’에는 보시자들을 기록해 함께 봉안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임진왜란 등 숱한 외세의 침입과 한국전쟁의 화마도 대중의 원력으로 조성·중수된 석가탑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966년 석가탑 보수를 위해 탑을 해체하면서 귀한 유물들이 세상에 소개됐다. 사리를 봉안한 탑신부 2층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함께 사

리함 등이 나왔다. 사리함 주위로 동거울 등이 사리함 밖 바닥에서는 비단에 쌓여 뒤엎겨 붙은 종이몽치가 발견됐다.

당시 기술로는 이 종이몽치를 떼어낼 수 없어 이른바 ‘묵서지편’이라 불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해야 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보존처리를 위한 상태조사를 하면서 발견된 종이들은 110여 편의 분량으로 분리될 수 있었다. 2005년 9월 묵서지편에서 ‘중수기(重修記)’라는 문자가 판독된 지 2년이 지난 2007년 10월 발견. 41년만에 ‘묵서지편’ 전체가 판독되어 창건 이래 두차례 중수된 석가탑의 비밀이 밝혀졌다. 조동섭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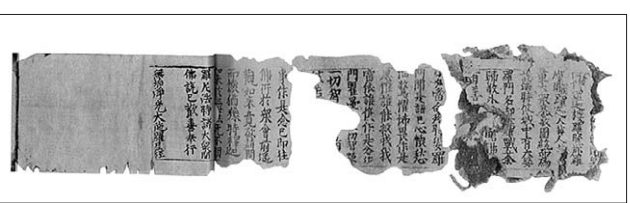
원력으로 대중들은 다시 시주를 보냈다. 1차 중수 때처럼 곡식류와 삼베, 비단과 마 등이 시주됐다. 스님들의 속가에서도 도움을 줬다. 다시 2층 탑신을 해체해 사리를 꺼내 임시봉안소에 모시고 공양을 올렸다. 재(齋)를 거듭 올리며 1층 옥개석, 탑신을 해체하고 기단부 감석까지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겨울비에 공사는 중단되고 비는 나흘간 계속됐다. 날이 개자 다시 재를 올리고 탑을 조립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불국사서석탑중수기행지와 추기’에는 중수 진행 과정을 ‘불국사탑중수보시명공중승소명기’에는 보시자들을 기록해 함께 봉안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임진왜란 등 숱한 외세의 침입과 한국전쟁의 화마도 대중의 원력으로 조성·중수된 석가탑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966년 석가탑 보수를 위해 탑을 해체하면서 귀한 유물들이 세상에 소개됐다. 사리를 봉안한 탑신부 2층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함께 사

■ ‘묵서지편’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묵서지편’에 대한 주된 관심사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나이다. 그간 학계는 통일신라에 탑이 조성된 이래 단 한번도 중수되지 않았을 것이라 믿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조성연대를 통일신라로 인정했다. 하지만 ‘묵서지편’을 통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통일신라의 것이 아닌 고려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학계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10월 27일 열린 ‘석가탑 발견 유물 조사 중간 보고’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 진정될 듯하다. 묵서지편 해독에 실질적 역할을 한 이숙재 교수(서울대 언어학과)는 ‘석가탑 묵서지편의 지편 조립과 이두 판독’이라는 주제 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표에서 △고려 정종 4년(1038) 중수기의 “전물부동(前物不動) 사리함 안에서 수습한 사리장엄구를 다시 안장하며 처음에 있던 그대로 안장했다”는 기록, △‘묵서지편’이 발견 당시 사리함 밖 바닥에 위치했으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사리함 안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다는 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서자나 서체 등을

미뤄볼 때 신라시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천혜봉 위원장(석가탑 묵서지편 조사위원회)은 중국 당나라 측천무후의 재위 기간(685~704)에만 사용된 측천무후(字)가 보인다. 이는 근거를 들어 통일신라의 것에 무게를 두었다. 박상국 문화재위원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쓰인 종이와 일본의 전문가에 의

해 신라시대의 것임을 확인 받은 사실을 볼 때 추담으로의 왜곡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것과는 반대로 고려 정종 4년(1038) 작성 문서 중 ‘이 해 ○월 ○일 대덕 송영이 보현인다라니경을 (사리공에) 납(納)했으며 얼마 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을 ○했다’라 적혀있는 것을 두고 문맥상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납’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만약 ‘납’했다면 고려 때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돼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고려 때 넣은 것이 고려시대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 신라시대의 것을 그대로 다시 넣은 것인지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만이 아니다.

조동섭기자

■ 남은 과제는 무엇?

불교계에서는 석가탑에서 발견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뒤 불교문화재를 국가에 빼앗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도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 등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없지 않다. 때문에 ‘묵서지편’의 사례를 통해 고대 한국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불교연구 인력 양성이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묵서지편’을 둘러싼 과제는 아직 많다.

▲소유와 관리 문제 현재는 2007년 5월 1일 이관된 부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묵서지편’ 등의 발굴유물에 대한 조계종의 소유를 인정받은 상태다. 문서에는 차후 전시 목적으로 일부 이관을 동의하고 조계종 총무원장과 국립

중앙박물관장이 이를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묵서지편’을 둘러싼 조계종과 국립중앙박물관과의 대립을 중재하고, 승려로는 유일하게 석가탑 발굴 유물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범하 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소유권을 인정

받았고 묵서지편의 보존처리나 보관문제상 현재로는 종단에 이롭다고 본다.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묵서지편을 통해 문화재가 많은 경주가 지진위험지역임이 드러났다. 문화재의 내진시설을 정비·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말해 천재지변에 대한 문화재 관리 강화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연구방향 ‘묵서지편’의 해독을 통해 석가탑의 중수사실은 물론 사리장엄구와 사리함, 해체 및 중수과정 등이 상세히 밝혀짐으로써 불교학, 사학, 국어학 등 전방위적인 한국학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

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묵서지편’의 자료를 홈페이지(www.museum.go.kr)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연구자의 ‘묵서지편’ 연구를 돕고 있다.

불교학계로서는 당시의 사찰과 탑 명칭은 물론 승가의 법제, 사원경제 운영상 등 불교문화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자료다. 범하 스님은 “조담신앙과 사리신앙의 중요한 연구자료”라며 대중의 모연을 통한 복원 사실을 증명하는 행자가와 석불사 명칭이 기록된 소명기 등을 예로 들어 “과거 해체·복원 절차에 대한 상세한 연구와 석굴암 등 인근 사찰 명칭과의 관계 고증이 요구된다”면서 ‘묵서지편’의 불교적 연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조동섭기자

학술단신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11월 9일 10시부터 대전대학교에서 “종교 창시자들의 교육방법 재조명”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발표에는 양은용 교수(원광대), 조한석 교수(성균관대) 등 6인의 연구자가 참여한다.

■한국불교미술학회(회장 범하)는 11월 10-11일 9시 30분부터 불교중앙박물관 2층 국제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불화> 완간을 기념하는 제 10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석정학술상 시상과 함께 범하 스님 화감을 기념하는 불교미술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특집이 있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11월 10일 오

후 2시부터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보살의 자비, 치료자의 공감’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갖는다. 자비를 심리치료의 공감에 대응하는 불교적 태도로 본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발표와 함께 조성호 교수(서울대 심리학과), 서동혁 박사(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가한다. 참가비는 회원·학생 2만원, 비회원 3만원, 성직자 1만원.

배움을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 - 동국대학교가 당신의 내일과 함께 합니다.

2008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명	학과명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영상대학원(주간)	문화콘텐츠학과, 영화영상학과, 멀티미디어학과	10.29(월) ~ 11.5(월)	11.9(금) ~ 10(토)
경영전문대학원(주간/야간)	General MBA, CO-MBA(문화경영)	11.19(금) ~ 27(화)	12.1(토)
불교대학원(야간)	불교학과, 불교문화콘텐츠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생사의례학과	11.5(월) ~ 16(금)	11.23(금)
행정대학원(야간)	행정학과, 인보·북한학과, 공간행정학과, 복지행정학과	11.5(월) ~ 16(금)	서울-11.24(토) 계룡대-11.27(화)
교육대학원(야간)	교육학과, 교과교육학과	11.5(월) ~ 16(금)	11.24(토)
언론정보대학원(야간)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인쇄출판학과	11.5(월) ~ 16(금)	11.17(토)
문화예술대학원(야간)	문예창작학과, 공연영상예술학과, 불교예술문화학과, 예술경영, 예술치료	11.5(월) ~ 16(금)	11.24(토)
국제정보대학원(야간)	정보보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IT-Business학과	11.5(월) ~ 16(금)	11.17(토)
불교문화대학원(경주/야간)	불교학과, 불교예술학과, 장례문화학과, 불교상담학과, 다도·사찰음식학과(신설)	11.12(월) ~ 22(목)	11.24(토)
사회과학대학원(경주/야간)	경영학과, 국제관계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체육학과	11.12(월) ~ 23(금)	11.24(토)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참고



공 고

단체등록증 재교부(신규)요청

1차 공고일 : 2007. 10. 31.
불 교 지 :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2차 공고일 : 2007. 11. 3.
불 교 지 : 현대불교신문

2007년 7월 10일 이전 분회에 등록된 종단 및 불자 신행단체는 아래와 같이 재교부를 공고합니다.

재교부 기간 2007년 10월 25일부터 2007년 11월 25일까지(30일간)

위 기간내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에서 발급하는 법인단체등록증을 재교부 받지 않는 종단 및 신행단체(110개 종단, 단체)는 본회의 취지 및 목적이 맞지 않아 탈퇴함을 인정하고 국제성 홈페이지 및 관할 세무서에 분회 명칭 사용 정지 신청을 요청할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07년 11월 2일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 총연합회 대표이사
◎ 행정업무사무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3-2번지 중후2빌딩 5층
TEL : 051)465-3255

알 림

귀의삼보 하옵고.....

귀 종단 및 단체에 부처님의 자비공명이 항상 충만하시어 상구보리·하회중생 하옵기를 부처전에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 총 연합회 11월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다방중이오나 일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자 : 2007년 11월 20일(화요일)
- ◆일 시 : 14시(오후 2시)
- ◆장 소 : (사)한불총대 회의실

▶ 참고사항 ◀

- 1) 등록종단(43개 단체) 총무원장 및 대표(종단, 대표 외 임원 1인~2인 참석가능)
- 2) 가사·장삼 수지
- 3) 미등록 종단 및 사회단체대표는 회의장 참석불가함.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 총연합회 대표이사

◎ 문의처 : 051) 465-3255